

전주 '아중호반도시' 조성사업 본격

시, 아중천 통수·생태하천 복원·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으로 관광 명소화 계획

최근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침체 일로에 있던 전주 아중지구 일대가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한 호반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거듭난다.

전주시는 아중호수의 아중천 통수,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아중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아중호수와 아중천의 물길을 잇기로 했다.

시는 노송천 유지용수가 기존 아중저수지 용수에서 상관수원지 용수로 전환됨에 따라 아중저수지 용수를 아중천으로 흐르게 해 아중천 건천화를 막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아중천 유지용수 수원지 사용을 전제로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중호수의 아중천 통수는 수원지 사용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화된다.

특히 시는 최근 국비 등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그간 하천 건천화와 기능을 상실한 보로 인해 정체수역이 발생하고, 수질악화와 악취문제가 제기돼온 아중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유아동1가 재전마을에서 유아동3가 소양천 합류점까지 6.25km 구간의 이르는 아중천 상·하류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복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하천유지용수 확보 △기능 상실한 고정보를 자연 친화적인 여울형 보로 개량해 수생태계 연결통로 확보 △퇴적오니 준설로 수질개선도도 △생태습지·식생환경조성 △자연형 호안 정비 등으로, 시는 지난달부터 생태하천 복원계획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 전주시의회 김명지 부의장과 오정화 의원, 관계 공무원, 아중천을 사랑하는 모임·이중 발전 협의회 등 지역주민 등과 함께 아중호수 생태공원과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현장에 대한 탐방행사에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계획 및 아중천 생태하천복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영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아중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건천화된 하천 유지용수 확보 등 하천 수질개선과 함께 만경강과 새만금의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총 50억원을 들여 아중호수에 소용광장과 가족 숲, 화장실, 주차장, 야외무대 등을 갖춘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아중호수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영역에 착수한 상태로, 오는 12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천과 삼천, 덕진연못 등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수자원인 아중천과 아중호수 주변의 물길을 되살려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를 회복, 자연 친화적인 생태수변공간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 생태권터로 만들 계획이다.

또, 아중호수와 인근 기린봉의 고유한 생태자원, 아중역 레일바이크 등 주변 관광자원들을 연계한 동부권 대표 관광명소로 개발, 한옥마을로 편중된 관광객 동선을 아중호수 등 동부권

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 전주시의회 김명지 부의장과 오정화 의원, 아중천을 사랑하는 모임 등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중호수 생태공원과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현장에 대한 탐방행사를 가졌다.

김승수 시장은 "아중저수지에 생태와 야간경관, 수상공원이 어우러지는 생태호수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아중천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제2의 전주천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22.4:1

127명 선발 2851명 접수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 결과 127명 선발에 2,851명이 접수해 평균 2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45명 선발에 2,669명이 접수, 평균 18.4:1의 경쟁률 보다 높은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직은 일반 64명 선발에 1,999명이 몰려 31.2 :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

또 장에 4명 선발에 48명, 저소득층 2명 선발에 32명, 사서는 7명 선발에 79명, 시설(건축)은 11명 선발에 64명, 시설(일반토목)은 1명 선발에 17명, 공업(일반기계)은 2명 선발에 19명, 공업(일반전기)은 2명 선발에 17명이 접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장소는 내달 8일에 공고하고, 필기시험은 18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삼례중 - 삼례여중 통합 2019년 3월 개교

오는 2019년 3월 삼례중과 삼례여중이 하나로 통합된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삼례중과 삼례여중이 통합해 2019년 3월 삼례에 18학급 규모의 통합 중학교로 새롭게 개교한다.

이번 통합은 학교 인근 축산단지조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삼례지역의 주민 50개

마을 약 2000명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설립 관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은 같은 기간 군산 수송동에 (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 전주만성도시개발지구 (가칭)양현초등학교, 2018년 3월에는 전주 군부대 이전 개발지구 (가칭)솔내초등학교를 각각 개교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여성장애인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책임져

전주시, 전북대병원 등 5곳과 장애인 임신부 특성과 산부인과 지정·운영 협약 체결

여성장애인이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신부 특성과 산부인과가 지정됐다.

전주시는 장애인 임신부가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 교병원 등 관내 산부인과 병원 5개소와 '장애인 임신부 특성과 산부인과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된 병원은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한나여성병원, 미르피아여성병원, 한별여성병원 등 5곳으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분만시설을 갖춘 관내 산부인과 병원 중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문턱 없는 시설 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전주시가 이처럼 장애인 임신부 특

성화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게 된 것은 장애인 임신부가 출산 시 부득이 병원을 옮겨야 하는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임신부 특성과 산부인과를 지정했다.

또한 전주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복지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전주시 장애인 수는 약 3만3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가임여성은 12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장애인들이 특성과 산부인과를 이용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장애인 임신부 특성과 산부인과 지정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모자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제3회 재전백산중 · 고 동창회 체육대회

4. 30. 10시 / 전주 완산체육공원 A축구장

주최 재전백산중 · 고 동창회 협찬 백산골프회



고문 김수곤
전 전북대총장(3회)



고문 송택섭
(14회)



회장 김재기
(14회)

수석부회장 박노열(18) 이용훈(21)

부회장 이길수(17) 이상만(18) 허태표(20) 권삼현(21) 정재철(21) 주영승(22) 정자영(22) 최규현(24) 나규순(24) 김경숙(25)

재무 박기영(22)

감사 김재규(24) 최낙삼(26)

사무총장 김재호(28)

사무차장 김경섭(28) 최병곤(29) 김윤연(29) 박철진(30) 송이석(33) 이강순(33) 김중수(34)

운영위원 박영래(15) 신원식(16) 한창식(17) 김규태(18) 김택근(19) 김중모(20) 김우술(21) 박기영(22) 김장수(23) 이승희(24) 김용직(25) 한영희(26) 차규철(27) 박호석(28) 황병철(29) 서동진(30) 오연탁(31) 김재훈(32) 김중진(33) 육삼수(34) 박용방(35) 고창재(36)

자문위원 송윤철(14) 김중진(18) 이용희(18) 황재식(18) 강철원(20) 김동철(22) 권창영(24) 권익현(25) 이백수(25) 우천규(27) 박천호(27) 이종희(28)